

[국제]

북핵신고 핵탄두 개수도 요구

美, 플루토늄 총량 등도...北도 원칙적 동의

미국은 북한이 중국에 제출한 핵 신고서에 북한이 제출한 플루토늄 총량과 북한이 만든 핵탄두의 개수를 분명히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이며, 북한측도 미국 측의 요구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2일 방북할 것으로 알려진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을 포함한 미 행정부 실무팀은 북한 측과 공식 신고서의 내용을 협의하면서 플루토늄과 관련한 정점 현안에 대해 막판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북핵 현안에 정통한 북측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협력력 의혹을 1972년 미·중 간의 상하이 공동성명을 인용

한 '간접시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대신 실질적인 위협대상이 플루토늄 함량에 대해 '검증을 확실하게 하는 내용'이 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공식 신고서에 담겨야 할 플루토늄 관련 내용은 ▲플루토늄 총량 ▲핵탄두 개수 ▲플루토늄 추출 과정과 격렬되는 영변 5MW 원자로 등 관련 핵시설의 가동 일지 ▲핵 활동 관련 시설 목록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말 미국 측에 플루토늄 총량을 '30kg 가량'으로 밝히는 한편 핵 탄두수나 핵개발에 사용한 양 등도 개략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말 북핵측이 구두로 핵 신고서와 관련된 자신들의 생각을 전한 바 있으나 미국은 내용 자체가 상세하지 않아 경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은 또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 자국내에서 비판적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UEP 및 시리아와의 핵 협력의 폭 등에 대해서도 ▲그동안 제기된 주요 증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 ▲향후 우라늄농축활동과 핵의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방안 등을 분명히 하는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소식통은 "공식 신고서 내용을 세부적이고 의미있게 해야 미국이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테러지원국 단계에서 북한을 빼겠다고 의회에 통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UEP와 시리아 협력력 부분은 미국내 정서를 감안해 실무적으로 보완할 내용은 이번 기회에 보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일리노이주)이 20일 펜실베이니아주 베들레헴의 거리에서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오는 22일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치른다. /연합뉴스

오바마 끝내기나 힐러리 재기나

美대선 민주후보 펜실베이니아주 경선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찌감치 후보를 결정할 공화당과 달리 대권주자인 치열한 접전을 벌여온 민주당이 약 3개월 보름동안을 보였으나 핵심인 플루토늄 생산량과 보유량에서는 격차가 있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의 실현에는 더 많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오바마는 이번 경선에서 힐러리에 크게 패하지만 양면면 벌여온 민주당이 약 3개월 보름동안을 보였으나 핵심인 플루토늄 생산량과 보유량에서는 격차가 있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의 실현에는 더 많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포인트 가까이 오바마를 앞섰지만 최근 조사에선 오바마가 전국적 지지도 우위에 힘입어 상당 정도 격차를 따라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힐러리, 선거전 격화-이처럼 펜실베이니아주 예선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결정의 변수가 될 수 있게 된다. 오바마 약재에도 지지도 상승, 힐러리와 격차 줄어-펜실베이니아주 여론에서 선출하는 대의원 수는 158명, AP통신이 자체 집계한 결과 현재까지 오바마가 확보한 대의원 수는 1천645명, 힐러리가 확보한 대의원 수는 1천507명으로 오바마가 138명 앞선다. CNN 집계에서도 오바마 1천644명, 힐러리 1천498명으로 오바마가 146명 많다.

마지막 예선이 열렸던 지난 3월 11일 미시시피주 예선 때까지만 해도 힐러리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20%

중국인 규탄시위 기열 佛, 中 달래기

중국인들의 가르푸 불매운동과 프랑스 규탄시위가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과잉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다. 프랑스의 중국통으로 유명한 장-피에르 라파랭 전 총리와 엘리제궁 외교고문인 장-디비드 레비트 등 고위인사들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이번 주 잇따라 중국을 방문한다. 라파랭 전 총리는 23일 베이징에 도착해 이틀남은 자바오 중국총리를 만나 반(反)프랑스 시위 등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前 총리 등 잇단 방중 反프랑스 움직임 무마

이 자리에서 라파랭 전 총리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그의 측근들이 전했다. 이런 가운데 가르푸의 최고경영자(CEO)인 호세 루이스 두란은 20일 르 주르날 뤼스 대령 후보 결정의 변수가 될 수 있게 된다. 오바마 약재에도 지지도 상승, 힐러리와 격차 줄어-펜실베이니아주 여론에서 선출하는 대의원 수는 158명, AP통신이 자체 집계한 결과 현재까지 오바마가 확보한 대의원 수는 1천645명, 힐러리가 확보한 대의원 수는 1천507명으로 오바마가 138명 앞선다. CNN 집계에서도 오바마 1천644명, 힐러리 1천498명으로 오바마가 146명 많다.

北 플루토늄 30kg 생산 핵개발에 18kg 핵실험에 6kg 사용

북한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의 사용처에 대해 핵개발에 약 18kg, 2006년 10월의 지하핵실험에 약 6kg을 각각 사용했다고 미국측에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50kg 이상을 생산했다고 추정하고 있어 플루토늄 생산량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큰 만큼 미국측이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지난 8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협상에서 핵신고 문제의 초점인 우라늄 농축계획과 시리아 핵기술 제공 의혹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보였으나 핵신고 플루토늄 생산량과 보유량에서는 격차가 있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의 실현에는 더 많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식량부족에 따른 소요상태를 일시키고 기아와 빈곤의 증가를 위협하고 있는 곡물가격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유엔이 모든 힘을 다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潘 총장 "식량위기 세계 경제성장·안보 위협"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20일 국제적인 곡물가격 상승은 세계의 빈곤퇴치 노력을 후퇴시키고, 이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세계 경제성장과 안보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이날 아프리카 가나 수도 아크라에서 열린 제12차

세계 경제성장과 안보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이날 아프리카 가나 수도 아크라에서 열린 제12차

www.hanbitgosi.co.kr ▶ 시작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

2008년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시험 거침없이 합격하라 - 한빛이 응원합니다.

79년 이룬 한빛 합격압도적 위

합격생이 말하는 최고의 강의로 79년 이룬 한빛 합격압도적 위

- 합격생이 말하는 최고의 강의 = 9급 공주 전담 강사 재직(5월 24일) 원년대 백범특강, 문제 3000제 = 79년 이룬 한빛 합격압도적 위
- 합격생이 말하는 최고의 강의 = 9급 공주 전담 강사 재직(5월 24일) 원년대 백범특강, 문제 3000제 = 79년 이룬 한빛 합격압도적 위
- 합격생이 말하는 최고의 강의 = 9급 공주 전담 강사 재직(5월 24일) 원년대 백범특강, 문제 3000제 = 79년 이룬 한빛 합격압도적 위

합격생이 말하는 최고의 강의 = 9급 공주 전담 강사 재직(5월 24일) 원년대 백범특강, 문제 3000제 = 79년 이룬 한빛 합격압도적 위

2009년 공무원시험 나이제한 완전폐지

★ 2009년 공무원시험 대비 주부/대학생/직장인을 위한 ★

아간 합격전략반 개설

시간 : 19:00 ~ 22:00, 3개월완성, 40만원 (문의해도)

공무원수강 "한빛 돌풍"

공무원 수험생은 한빛으로 돌린다.

비교거부! 최경의 강사진! 전국 최고의 시설!

예비공무원 사관학교

한빛

공무원학원

전대후문 복구청양 234-0234

| 사건번호 | 신청인 | 목적 |
|------------|-----|---|
| 2008카공 143 | 김대현 | 자기앞수표 번호: 43851848 금액: 200,000원 발행일: 2008년 3월 11일 |
| 2008카공 144 | 유인숙 | 자기앞수표 번호: 43851848 금액: 200,000원 발행일: 2008년 3월 11일 |
| 2008카공 145 | 김대현 | 자기앞수표 번호: 43851848 금액: 200,000원 발행일: 2008년 3월 11일 |
| 2008카공 146 | 유인숙 | 자기앞수표 번호: 43851848 금액: 200,000원 발행일: 2008년 3월 11일 |
| 2008카공 147 | 김대현 | 자기앞수표 번호: 43851848 금액: 200,000원 발행일: 2008년 3월 11일 |
| 2008카공 148 | 유인숙 | 자기앞수표 번호: 43851848 금액: 200,000원 발행일: 2008년 3월 11일 |
| 2008카공 149 | 김대현 | 자기앞수표 번호: 43851848 금액: 200,000원 발행일: 2008년 3월 11일 |
| 2008카공 150 | 유인숙 | 자기앞수표 번호: 43851848 금액: 200,000원 발행일: 2008년 3월 11일 |
| 2008카공 151 | 김대현 | 자기앞수표 번호: 43851848 금액: 200,000원 발행일: 2008년 3월 11일 |
| 2008카공 152 | 유인숙 | 자기앞수표 번호: 43851848 금액: 200,000원 발행일: 2008년 3월 11일 |
| 2008카공 153 | 김대현 | 자기앞수표 번호: 43851848 금액: 200,000원 발행일: 2008년 3월 11일 |
| 2008카공 154 | 유인숙 | 자기앞수표 번호: 43851848 금액: 200,000원 발행일: 2008년 3월 11일 |
| 2008카공 155 | 김대현 | 자기앞수표 번호: 43851848 금액: 200,000원 발행일: 2008년 3월 11일 |
| 2008카공 156 | 유인숙 | 자기앞수표 번호: 43851848 금액: 200,000원 발행일: 2008년 3월 11일 |
| 2008카공 157 | 김대현 | 자기앞수표 번호: 43851848 금액: 200,000원 발행일: 2008년 3월 11일 |
| 2008카공 158 | 유인숙 | 자기앞수표 번호: 43851848 금액: 200,000원 발행일: 2008년 3월 11일 |
| 2008카공 159 | 김대현 | 자기앞수표 번호: 43851848 금액: 200,000원 발행일: 2008년 3월 11일 |
| 2008카공 160 | 유인숙 | 자기앞수표 번호: 43851848 금액: 200,000원 발행일: 2008년 3월 11일 |
| 2008카공 161 | 김대현 | 자기앞수표 번호: 43851848 금액: 200,000원 발행일: 2008년 3월 11일 |